

진도, 저소득층 에너지개선사업 '활발'

냉방기기·단열 등 다양한 주거 복지서비스 제공

진도군이 저소득층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 이용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냉·난방 지원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냉방기기(에어컨) 설치 ▲단열·창호·바닥·배관공사 등 난방 시공 지원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층을 선정

해 가구당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군은 매년 400여 가구를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대상가구 해당 여부 확인을 거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40-3167.

진도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무더운 이번 여름을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계속해서 폭염·추위에 취약한 가구를 발굴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영암,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장 86곳 확정

목표량 215% 초과...올해부터 4% 이자 4년 동안 지원

영암군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업체 86곳의 대출이자 차액인 '이차(利差)'를 보전해 주기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6월 3주간 영암군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기존 이차보전보다 더 도움을 주기 위해 이자율 4%, 기간 4년으로 상향해 모집한 결과, 올해 선정 목표량인 40개소를 초과해 86곳의 소상공인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영암군은 전수조사로 이들의 사업장 현황을 방문해 실제로 운영되는지, 이차보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나아가 영암군 소상공인심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해 목표량의 215%에 해당하는 86개 사업장의 이차보전을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 안내문을 받은 사업장은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이차보전 지원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에는 효력이 소멸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확정 안내문을 받은 사업장은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이차보전 지원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에는 효력이 소멸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암=김형두 기자

목포, 전기버스 보급사업 시행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2대의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중형 최대 8,642만원, 대형 1억2,1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

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동안 군은 매월 정례조회를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분청·직속기관·

신안 비금도에 샴페인박물관·기념공원 조성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비금도-프랑스 특별한 인연의 첫걸음

조선과 프랑스 간에 체결된 '조볼우호 통상 조약'(1886년)보다 35년 앞선 1851년, 신안군 비금도에 프랑스 나팔호 선원을 대운 포경선이 난파됐다.

당시 중국 상하이 주재 프랑스 샤를 드 몽티니 영사는 통역관과 함께 표류한 선원 20여 명을 구하러 비금도를 찾았다.

고초를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선원들은 다행스럽게도 비금도 섬 주민들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지내고 있었다.

철종 2년 비변사등록에는 "비금도에 표류한 이국인 20명의 구원을 위해 특정한 배 2척을 끌라 제공했다"고 기록돼 있다.

172년이 흐른 2023년 5월 프랑스 파리 세브르 국립도자기박물관에서 양국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행사가 프랑스 한국 대사관 주최로 열렸다.



비금 하누님 해수욕장

몽티니 영사가 나주 목사에게 받은 몽기 호리병이 전시된 가운데 프랑스 샴페인협회 사무총장, 한국 막걸리협회 고문, 비금도 사건을 연구한 에마뉴엘 루 파리 7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신안군은 172년 전에 벌어진 일을 기념하고 2026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우선 프랑스 선원이 표류한 비금도에 기념공원을 조성한다. 폐교 등 유휴시설을 새단장해 샴페

인 박물관을 만들고 이 박물관에서 샴페인과 막걸리도 판매할 계획이다. 몽티니 영사의 고향 툴루즈와 자매 결연을 맺고, 2030년 비금-주포 간 연도교 개통에 따른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프랑스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비변사 기록을 전수 조사, 연구하는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 2024년 준공 예정인 황해교 류역사관에 '신안의 표류 역사' 코너를 신설해 관람객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비금도 사건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에마뉴엘 루 교수를 신안으로 초청해 강연회도 계획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26일 "신안군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해상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프랑스와 특별한 인연의 씨앗을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디려 한다"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완도, 전남도 유일 '청년 친화 우수 지자체' 선정

일자리·주거·문화·교육·복지 등 청년 맞춤형 정책 높이 평가

완도군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2023년 청년 친화 행정 대상'에서 전남도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제정된 '청년 친화 행정 대상'은 지자체의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청년 친화 지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특히 정책 수요자인 청년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상을 선정해 의미가 남다르다.

완도군은 지난 2018년 '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센터 '완생' 운영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지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등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청년을 위한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 온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리 완도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해남, 건물번호판 무료 교부

7월부터 교부 수수료 면제

해남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건축물에 부착하는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규 건축물에 대해 건물번호판을 신청하거나 훼손 또는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신청할 경우 7,000원의 비용을 납부해 왔다.

이번 무료 교부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된다. 수수료 면제에 따라 주소정보시스템의 사용 촉진은 물론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물번호판이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등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주된 출입구의 우측 벽면에 또는 기둥 등에 설치되어 있다.

해남군은 건물번호판은 현재 총 3만4,594개 설치되었으며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 점유자가 관리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관리 소홀 및 미부착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다.

교부나 재교부 신청시 민원토지와 지적재조사사업(☎061-530-5766)으로 방문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해남=김동주 기자

강진, 관행 깨고 보은산 V랜드서 정례조회 '눈길'

'수국길 축제' 홍보 자리 마련 등 주요계획 당부

강진군은 지난 22일, 6월 정례조회를 보은산 V랜드 공원에서 가졌다

강진군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매월 대회의실에서 개최해오던 정례조회를 틀을 깨고,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개최되는 '수국길 축제'에 대한 홍보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그동안 군은 매월 정례조회를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분청·직속기관·

사업소·읍면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중 주요 계획과 당부 사항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이번에는 사무실을 벗어나 보은산 V랜드 공원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하는 야외 행사를 진행했다. 강진원 군수가 직접 처음 열리는 수국길축제에 대해 설명하고, 수국길 축제장을 둘러본 직원들은 축제 관련 아이디어나 건의 사항 등을 자유롭게 말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오후 3시 30분에 행사를 개최하여 미취학 아동이 있는 직원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행사장은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참여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군에서는 7월 2일까지 'SNS 공유 이벤트'를 통해 직원들이 축제 현장 후기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공유하여 강진 수국길 축제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강진=한홍수 기자

My Bucket List

영암 관광지 추천

실제 서킷에서 레이싱의 열정과 에너지 느껴보기!

가족과 함께 물놀이 즐기기!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뿌리인 트로트 역사 바로 알기!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자연속에서 여행 즐기기!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영암 월출산기찬랜드

#월출산·기찬릿길·구림전통마을